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All	10.

# 친구사이

동성애 남성들을 위한 모임

## 소식지 제3호

- 주요기사 -

세계 동성애자 축제 - Mardi Gras

ILGA 제16회 세계대회

동성애의 원인은 무엇인가?

영화 "필라델피아"

일본 동성애 인권운동의 현황

"친구사이"는 보다 건전한 동성애 문화를 위한 남성들의 모임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에이즈 예방 및 퇴치운동 (국내 에이즈 예방단체와 협력)
- 동성애자 인권보호
- 동성애로 인한 고민상담
- 친목도모
- 문화행사 및 소식지 발간
- 기타

## Mardi Gras!

세계 동성애자의 축제 - 호주에서 개최

세계 게이 & 레스비언 의 축제인 Mardi Gras가 호주의 시드니에서 2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1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로서 예술제, 카바레 제전, 영화, 스포츠, 세미나 등이 열렸으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퍼레이드가 3월 5일 성대하게 열렸다. 전세계의 50여만명의 동성애자들이 참여하였으며 호주의 국영 TV가 생중계하였다.



### Mr. 레이디 콘테스트, 랑코 파티 열려

이태원에 소재한 클럽 파슈에서는 지난 3월 12일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흥미있는 2가지 행사를 개최하였다. Mr. 레이디 콘테스트와 랑코파티가 그것이다.

선발된 Mr. 레이디는 5월 20일 일본 수바우라 골드클럽에서 개최될 Mr. 레이디 유니버스에 참가할 예정이다. 금번 행사는 총 5명의 미녀가 참가하여 미를 과시하며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심사위원은 패션 디자이너, 안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주요 업소 사장들로 구성되었으며 의상, 워킹, 장기자랑, 재치, 옹모 등을 다각적으로 심사하였다.

심사결과 2명의 공동 수상자가 뽑혔는데 일본 행사 참가비와 많은 상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여서 진행이나 참가자들에게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좋은 행사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관객들의 반응이 있었다. 한편 마음에 맞는 친구와 애인을 만드는 행사인 랑코파티도 열렸다.

번호표와 색깔별 머리띠를 착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었는데 관객들의 수줍음(?)으로 인하여 많은 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 "ILGA 제16회 세계대회" - 뉴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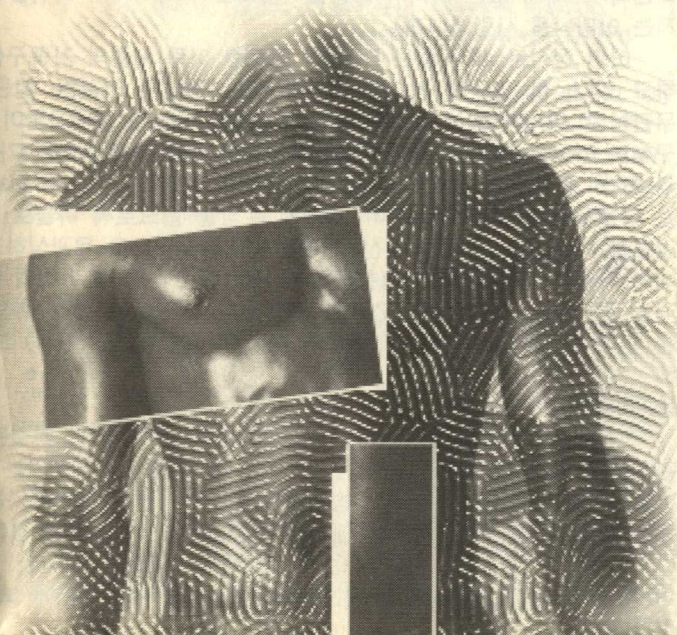
「스톤월 제 25주년」 행사도 함께...

1994년 6월에 세계에 있는 레스비언, 게이, 바이 섹슈얼, 성전환자 등이 동성애 해방운동의 국제적인 연대를 축하하기 위하여 뉴욕에 운집한다.

ILGA (International Gay, Lesbian Association) 제16회 세계대회, 「스톤월 제 25주년」 조직위원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ILGA」는 레스비언과 게이의 인권문제를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전세계적인 연합체를 가지고 있다. ILGA 세계 회의에는 수 백명의 활동가가 모여 서로 간의 협력체제를 만들고 개개인의 사업 계획이나 게이 회의의 일정을 세우는데 이번 회의는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또 장애자문제, 여성문제 등에 관한 예비회의가 6월 24일부터 열리게 된다.

「스톤월 제 25주년」은 1969년 6월 28일에 일어난 스톤월 항거(친구사이 제 2호 참조) 25주년을 축하하는 행사이다. 이 항거는 현대의 게이, 레스비언의 정당한 권리회복과 운동의 기수가 된 것이다. 6월 26일 UN빌딩부터 센트럴파크까지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 이 행진에서 세계 속의 게이, 레스비언 단체의 존재와 그 다양성을 주장하게 된다. 25일에는 항거가 일어난 장소에 있는 스톤월 Inn에 인접한 곳에서 촛불행진이 예정되어있다.

또한 제4회 게이 올림픽과 문화행사가 뉴욕을 중심으로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15,000 이상의 선수와 문화축제 참가자가 31개 팀과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톤월 25주년 기간인 6/24~6/27 사이에는 뉴욕에 백만 이상



## 이태원의 새로운 장소 "코코넛" OPEN!

오는 4월 22일 금요일 오후 9시 30분에 새로운 클럽 "코코넛"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인덱스 바(INDEX BAR)로서 가라오케, 게임 로비, 멀티사운드 뮤직 등을 갖춘 장소인데 영업개시 시간은 오후 8시부터이다. 위치는 이태원 "파슈"에서 외인아파트쪽으로 전화는 793-0666

## 국내 다큐멘터리 영화 "한도시 이야기"

동성애자의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 도시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5월 중에 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 시내의 각계 각층 사람들-미래학자, 거지, 장애자, 점쟁이, 종말론자, 외국인 노동자, 노인, 게이, 대통령, 귀순용사 등과의 인터뷰 모습 등과 서울의 다양한 측면 등을 담아 타임캡슐에 보관하여 400년 뒤 후손에게 보여주고자

외로운 하루...  
끝없는 기다림...  
내 몸을 감싸는 공허함...  
이 모든 것을 나누고 싶다.

ALEXANDER...

언제나 나의 발길이 머무는 곳...

카페 "알렉산더"

서울시 종로 낙원상가 끝 천일식품 3층

TEL: 82-02-743-8264



# 기모노, 가라오케, 그리고 동성애 인권

글 : 장진석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세계적으로 표면화 되면서 동성애 인권운동가에게 씌워진 편견화된 이미지 중 하나는 서양의 문물이나 백인 문화의 잔재라는 비판이었다. 그러나 1990년초부터 이웃나라 일본이 유교사상, 가부장제도, 장남옹호주의 등의 벽을 깨뜨리고 동양 사회에서도 동성애자들의 인권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혹을 현실화 시키고 있다. 1992년 당시 미국에서 세계동성애관계기관과 교류를 하고있던 필자는 같은 동양인 입장에서 "백인화"된 세계 동성애 인권운동 내의 일본단체의 활약상을 무척 반갑게 맞아드렸다. 일본단체의 성장을 보면서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동성애 인권단체가 설립되리라는 기쁜 마음으로 1992년 여름 일본 동성애 인권단체 "OCCUR"의 방문길에 나섰다.



OCCUR 회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OCCUR의 사무실은 예상외로, 동성애밀집소이자 변화가인 '신주꾸'에서 15-20분 정도 걸리는 지하철 거리의 평범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었다. 경제 최강국이라는 말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서울의 번두리 지역과 아주 흡사한 조그마한 동네에 위치한 OCCUR는 소규모 개인 오피스텔을 사무실 겸 아지트로 사용하고 있었다. 대규모 동성애기관 건물에 익숙해 있던 필자에게도 초라하고 외소한 OCCUR의 사무실에서 단결되어 뭉쳐있는 OCCUR 회원들의 모습은 반세기전 세계제패를 꿈꾸던 일본인의 굳은 의지와 단결심을 보여주는 듯 하였다.

필자와 처음 만나게 된 OCCUR 회원은 지하철역까지 나를 마중 나온 17세의 미소년이었다. 선배들을 자신의 사무라이 총수 모시듯 정중히 대하는 그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파고다 공원 뒤 쓰레기 하치장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변소에서 자신의 소외감을 생리적 정액방출로 도피하려는 '보갈선배'의 발자국인 '싸롱'을 찾아 헤메는 한국의 동성애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머리를 깊이 숙이며 서툰 영어로 짝막히 환영한다고 대문 앞에서 연거푸 인사를 하는 20대 청년들인 OCCUR 회원 13명을 보면서, 한국에서도 곧 이런 단체가 조직화 되리라고 조용히 되뇌임으로써 내 자신의 부러움과 질투심을 자위했다.

모임의 전반부에서 당시 27세로 그들 중 최연장자이자 영어 구사자인 통역관이 짝막히 OCCUR의 설립목적과 운영방침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그들의 대표인 니미 히로시상은 NHK에서 특별히 제작한 "한국동성애자들의 실태"라는 다큐멘터리 비데오를 틀어 주면서 필자에게 한국 내에 동성애 인권운동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역설했다. 미국 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던 필자는 필자 자신의 출생지인 서울의 동성애 인권현황에 대해 일본인들보다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부끄럽고 당황스러웠다. 한국태생 재미교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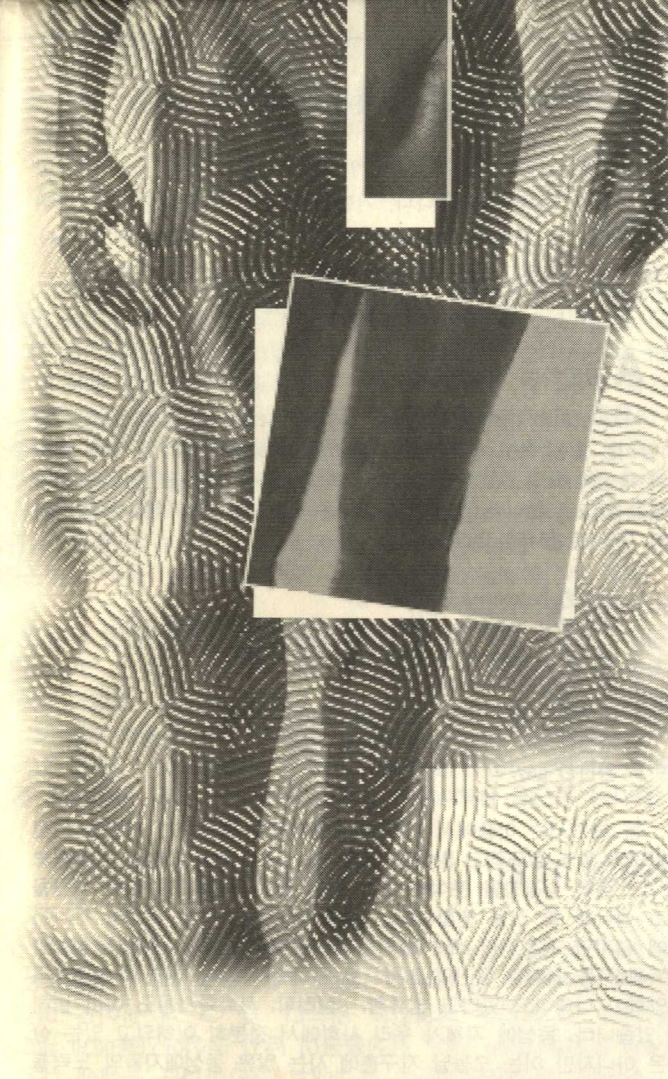
필자를 보고 OCCUR 회원들은 훗날 한국 내의 동성애 인권운동의 후원을 약속했다.

모임이 끝난 후 8명의 회원들은 필자를 오끼나와식 주점에 데려가 한국음식과 일본음식의 중간의 맛을 갖춘 오끼나와 메뉴를 설명해 주었다. 또한 한복과 기모노와의 중간 형태를 취한 옛 오끼나와 여인의 머리형과 복장을 가리키며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듯 했다. 떠나기 전에 필자에게 교토의 고전문화를 담은 책자와 후로시키(보자기)를 선사하면서, 미국화된 필자에게 동양동성애 인권운동가의 긍지를 심어주었다. OCCUR 회원과의 만남은 필자가 뉴욕으로 귀국한 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항상 '쪽발이'라고 적대시만 하던 일본인에게 과연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OCCUR 방문 1년반 후인 1993년 12월에 필자가 동성애 단체의 조직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OCCUR에게 받은 인상은 필자에게 많은 충고와 용기를 주어왔고 또 줄 것이라 생각한다.

비록 지금은 대부분의 한국 동성애자들이 하지도 못하는 일본말로 가라오케 노래를 목이 찢어져라 부르는 것을 '진보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OCCUR과 같은 동성애 인권운동가를 존중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 아직도 국내의 대부분의 동성애자가 일본의 포르노와 동성애 성행위 밀집소 방문 음담패설을 '진보적인 기행문'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한국 내 단체도 OCCUR를 능가하게 되어, 한국인의 단결심과 긍지를 세계동성애 사회에서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뛰어본다.

### OCCUR의 중요 활동

- 1985년 4월 7명의 동성애청년이 단체조직을 결의
- 1985년 8월 "Gay Boyfriend"라는 주제의 책을 출판
- 1986년 3월 단체가 공식적으로 발족되어 OCCUR라고 개칭
- 1986년 9월 동성애 여성단체 분리결성
- 1987년 3월 나카노구에 사무실 대여
- 1987년 8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세계동성애단체협회에 일본대표로 참석
- 1988년 4월 일본 보사부에 인권침해적 AIDS관련 법조항 삭제 요청
- 1988년 8월 나고야에서 일본내 동성애단체 총연합 문화 행사 개최
- 1989년 10월 일본 보사부와 협력 AIDS 관련 연구 조사 착수
- 1989년 12월 세계 AIDS 날 연합회 개최
- 1990년 4월 청소년 교육기관에 동성애자 출입금지라는 규칙에 대해 일본 문교부 대상으로 시위 주동
- 1991년 2월 푸추청소년센터의 동성애인권침해사건 법적소송
- 1991년 9월 세계인권위원회에 참석 '동성애 인권도 정치적 인권침해조항에 포함하라는 시위 참여
- 1991년 11월 일본내 유명 사진 '이와나미' 국어 사전의 동성애자의 정의에서 "비정상적 행위"라는 부분을 삭제 요청하여 개편 성공
- 1992년 3월 OCCUR 자체내 다큐멘터리 제작
- 1994년 8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될 세계 AIDS연합회에서 동성애 AIDS감염자의 인권에 대한 시위 기획중



## S.O.S 세계적으로 공용되는 우리들만의 암호 분홍색 삼각형과 무지개 깃발

분홍색 삼각형은 동성애 인권운동을 상징한다.

2차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군사정권은 유대인에게는 데빗의 별을 달아 학살했고, 남성동성애자들에게는 삼각형 표시를 죄수복에 부착한 후 게스실에서 집단 살해하였다고 한다. 그것을 유래로 하여 생긴 이 기호는 초창기에는 "Silence = Death" 침묵은 죽음과 같다는 구호로 우리들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 한 자살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내포하였으나, 너무 암울하다는 여론에 의해 현재에는 "Action = Life"라 하여, 동성애 인권운동의 "활동"이 곧 우리들의 삶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를 공동구호로 사용하고 있다.

여성동성애단체에서는 남성위주의 분홍색 삼각형에서 벗어난 여성만을 위한 흑색 삼각형을 상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국적, 인종, 종교, 문화를 막론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기로는 무지개를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세계 대도시 여행중 분홍색 삼각형이나 무지개 국기를 보면 우리의 형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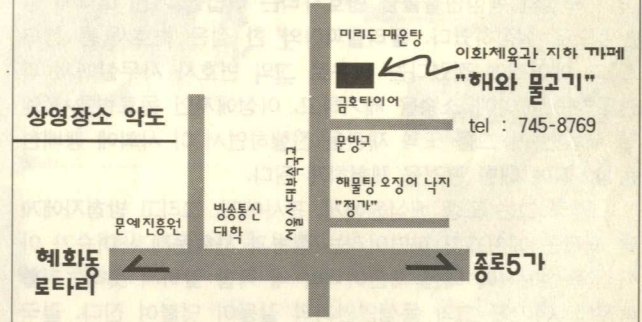


## 친구사이 주최 "영화의 밤"

영화제목: "오코게" - 일본판 결혼피로연  
사랑하지만 같이 잘 수 없었던 두 남성의 이야기!

날짜: 94년 5월 1일 일요일  
시간: 오후 7시 - 9시 영화 상영  
오후 9시 - 10시 토론회

장소: <해와 물고기> 지하철 4호선 해학역 부근  
입장료: 5000원(커피 포함)



# AIDS

## 에이즈의 증상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항체가 형성된 사람, 즉 항체 양성자(감염자, 에이즈 환자는 아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임상 증상이 없어서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보이거나(건강인으로 5-10년 생활함) 타인에게는 전파력이 있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잠복기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감염 후 수년 이상이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마른기침, 원인모를 설사, 발열, 평균 체중의 10% 이상의 체중 감소, 심한 전신피로 등이나 이런 증상만으로는 에이즈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병이 진행되어 각종 기회감염증(폐렴, 진균 감염 등) 혹은 암(카포시 육종, 임파종)이 발생하면 이때 '에이즈'라고 하며 이런 증상의 환자는 거의 사망하게 된다.

### 에이즈 치료 및 예방 백신의 개발 현황은?

현재까지는 뚜렷한 완치방법이나 예방 백신이 없으므로, 스스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다만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 생명을 연장시키는 AZT(아지드티아진)라는 약이 있지만, 부작용이 심하고 같은 환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다.

그러나, 투여를 중지하면 바로 그때부터 이제까지의 억제 효과가 일시에 사라져 버리고 발병이 빨라지기도 한다.

# 학술연구

## 동성애의 원인은 무엇인가?

Henry Gleitman의 저서를 근거로 한  
국내 교수들의 공동연구

무엇이 동성애를 야기하는가? 아직 명쾌한 답은 없다. 이 물음은 단순히 "무엇이 이성애를 야기하는가?"라는 물음의 뒷면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성애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번째 물음은 제기된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성애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동성애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에도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생물학에 기대를 거는 접근이 하나 있다. 잠정적으로 遺傳的 素地(genetic predisposition) 때문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Kallman, 1952). 一卵性(identical) 쌍생아의 경우가 二卵性(fraternal) 쌍생아인 경우보다 동성애의 경향성의 상관이 훨씬 높다는 연구결과가 이 입장이 의존하는 증거이다. 이 결과는 인상적이다. 그러나 나중 연구자들은 같은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의는 줄어들었다.

다른 연구자들은 성호르몬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최근의 어떤 연구들에서는 남성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보다 어떤 남성호르몬의 수준이 낮음을 밝혔다(Kolodny 등, 1971). 그러나 긴장과 질병도 남성 이성애자들에게 비슷한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문제였다. 동성애자는 자기의 이탈된 신분때문에 대단한 사회적 긴장하에서 살고 있으므로, 호르몬수준은 동성애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동성애의 간접적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아무튼, 남성호르몬수준이 동성애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최후의 반론이 남아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성호르몬이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투여되는 경우, 성적 정력은 향상되지만 그 방향이 변하지는 않는다. 즉 그 새 관심도 여전히 동성애 상대에 향한다(Kinsey, Pomeroy, 및 Martin, 1948). 남성 동성애가 남성호르몬의 부족이 그 원인이 아님은 분명하다. 비슷한 얘기가 여성동성애에도 적용되리라는 가정은 아마 타당할 것이다.

## 아동기 체험

또 한가지 접근은 Freud에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동성애에 잘 빠지게 하는 어떤 체질적 요인이 있다는 그 당시 유행하던 믿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이 잠재력은 어떤 환경적 사건이 수반되어야만 드러난다고 믿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동성애는 가끔 외디퍼스적 갈등의 시기에 야기된 공포에 대한 반응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어린 소년은 어머니의 애정을 놓고 아버지와 경쟁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그 두려움은 다른 여성에게도 일반화된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 동일시함으로써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려 한다.(아무튼,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니깐).

어떤 정신분석학자들은 Freud가 강조한 어린 시절의 가족구성에 관련된 증거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동성애자는 "긴밀히 연결된, 친근한" 어머니와 "적의적이고 무관심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았다. 그 연구자들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 가족구성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는 항상 아들과 지나치게 가깝고 아들을 아기취급하며 과보호하고 지배한다. 그녀는 아들을 자신의 숨김없는 벗(confidant)으로 만들고, 남편보다는 아들을 지나치게 좋아하며, 갖가지 주장을 함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반감을 갖도록 사주한다. 아버지 자신은 아들에게 정서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적대감을 가지며, 아내의 아들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에 대하여 결코 반격을 가하려 하지 않는다. 이 모두는 성적인 점잔뻐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연출된다. 어머니는 성을 추잡한 것으로 생각하고, 수음을 엄격히 금하며, 때로는 아들이 (아동기부터 성인초기까지) 보이는 이성애적 흥미를 방해한다 (Bieber 등, 1962).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남자의 동성애의 원인이 긴밀히 연결된 어머니와 적의적이고 무관심한 아버지에 있음을 밝히는 것인가? 이 결론이 부당하다는 많은 반론이 있다. 한가지 반론은 그 연구의 대상이 정신병환자인 동성애자만을 포함했다는 데 근거한다. 성격적 적응상 상당히 건전한 남자 동성애자들에게서도 비슷한 가족배경이 발견되는지는 분명치 않다. 어느정도 그렇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Thompson과 McCandless, 1976) 또 한가지 방법상의 문제는 아동기의 묘사가 성인기에 보고된 회상적 답변이었다는 것이다.



## 독자칼럼 "식성(?) 운운하는 인스턴트 사랑은 이젠 「아듀」 완전한 사랑은 정신+육체임을 인식

「어머, 저 사람은 내 식성(?)이야.」  
「미친년, 니 식성이라고 해서 다 되는 줄 아니?」- 극장에서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작고 아담한 사람 아니면 키크고 날씬한 사람?」  
「아저씨는 40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체격 좋고 젊으니까 좋아하는 여자(?)들 많겠대.」- 술집에서

극장, 술집 등 게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같은 말을 듣는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사람의 됬됨이는 생각도 않고 우선 먼저 신체적인 조건, 섹스취향 등을 내세우는 것이 작금의 국내 동성애 문화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일부는 진실한 사랑, 순수한 사랑을 지향하는 이들도 있지만 전자쪽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반인이 들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식성(?)」이란 용어를 마치 게이들의 공식적인 용어인양 거침없이 내뱉으면서 육체적인 사랑에만 촉각을 세우는 이들은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사고·관념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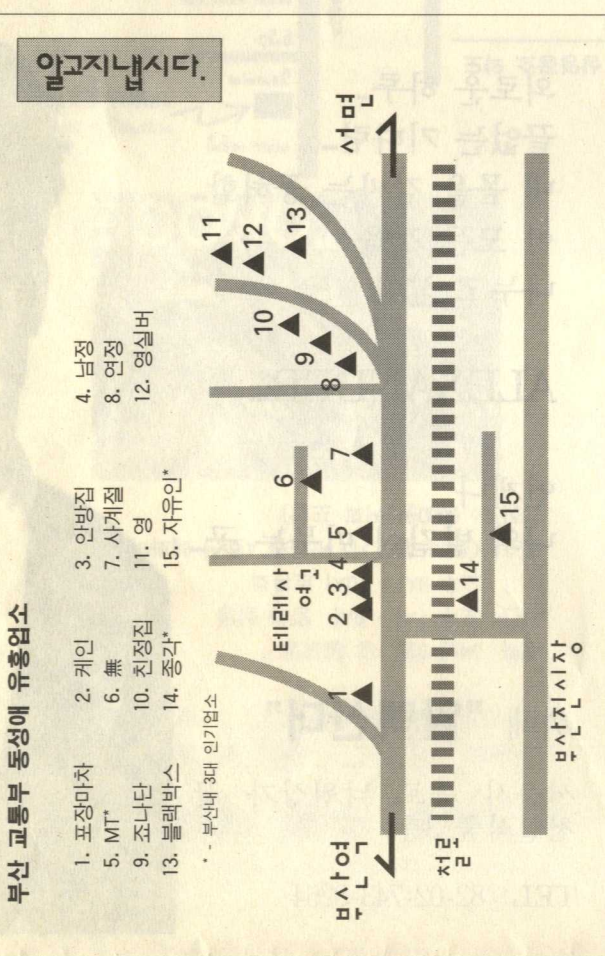
동성간의 사랑이라고 해서 이성간의 사랑처럼 순결하고 고상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더욱이 일반인들과 다른 차원에서 그것도 가려진 세계(?) 속에서 사랑을 해야할 입장이라면 오히려 이성간의 사랑보다 더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사랑에 접근해야하는 것이 우리 게이들의 현실이다.

또한 완전한 사랑이란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을 때 생성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사랑을 진실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나름대로의 사랑철학쯤은 지녀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로의 육체에만 관심이 있어서 한동안 사랑을 나누었다고 치자. 이럴 경우 인간의 육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그 기능을 잃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육체적 조건을 앞세운 사랑은 한시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부부가 50대 60대로 접어들면 그때엔 정으로 산다고들 한다. 이는 사랑을 함에 있어서 상대의 육체적 기능만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체력이 왕성한 20-30대만 살다가 죽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란 언어 앞에서 자신에게 스스로 채찍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인간의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젊은날, 아니 육체적 기능이 왕성하다고 느끼는 시간에 「우선 먹기 곳감이 달다」는 식으로 여러 사람과의 육체적 사랑에만 몰두했다가 훗날 초체해진 육신만 남고 그 누구도 자신의 곁에 없을 때를 상상한다면 앞으로의 생활자세와 사랑에 대한 접근이 달라질 것으로 여겨진다. 게이도 이 사회의 떳떳한 한 인간이고 열심히 살며 정열적으로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각자 스스로가 느낄 때 식성 운운하며 인스턴트(?) 사랑을 즐기는 일은 우리 곁에서 멀어질 것이다.

「사랑도 팔고 사는 속이며 속는 세상~~~~」。 이같은 황폐한 사랑은 멀리멀리 내다버려야 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 모두이다. <민>



## "PHILADELPHIA"

## 영화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사실 동성애 주제 영화는 세계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성애에 대한 근본적인 애해가 없거나 동조하지 않는 영화제작자, 감독 기타 스태프들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도 있었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결혼피로연', '패왕별희'는 중국계 영화들이었으며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

3월 26일부터 상영된 '필라델피아'는 영화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할리우드에서 처음으로 손을 댄 동성애 영화이다. 할리우드의 존립 근거 자체는 상업성에 있기 때문에 할리우드의 제작진은 진보적인 관객이나 동성애자만을 관객층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는다. 이는 곧 동성애자와 그에 관련된 문제가 인류사회에 보편화 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하겠다.

잘 알다시피 이 영화는 골든글러브상, 아카데미상 등에서 톰 행크스가 남우주연상을 휩쓸었는데 영화의 내용면이나 예술적 완성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이 영화를 미국의 보통사람들 이야기로 만들기 위하여 필라델피아에서 실제 벌어졌던 일을 소재로 삼았고 이야기 구성의 핵심인물들을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미국의 중산층으로 설정하였다. 필라델피아의 한 젊은 변호사(톰 행크스)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이유로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파면당하면서 이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성애자인 동료변호사(덴젤 워싱턴)가 그를 도와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회에 팽배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체현하게 된다.

결국 그는 도중 배심원에게, 판사에게, 그리고 방청자에게 이 재판은 에이즈와 파면이라는 질병과 사회문제가 이슈가 아니라 동성애자에 대한 재판이라며 왜 직접 말하지 못하는가를 따진다. 여기에 그의 동성연인과의 갈등이 덧붙여 진다. 결국 재판은 승소로 끝나지만 주인공은 결국 에이즈로 죽게 되고 가족과 함께 그의 동성연인 그리고 동성애자 친구들이 모여 그를 추모한다.

이 영화에서 동성애자들이란 별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보통 사람들의 하나로서 시대의 민감한 이슈에 분노하며 사랑에 번민하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 민주시민의 일원이며 성실한 납세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결국 에이즈는 부도덕한 자들에게 내린 신의 마지막 형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느 누구도 걸릴 수 있는 질병이고 동성애라는 것도 별난 예술인들이 하는 특수한 연애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왜 꼭 인간은 이성끼리만 사랑을 해야 하는가 하고 한번쯤은 의심을 풀어보았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동성애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본질)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반응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견해가 없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의 모습들만을 스케치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다.

감독: 조나단 дем (양들의 침묵)

주연: 톰 행크스(스플래쉬,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덴젤 워싱턴(말콤X)

'94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각본상, 분장상, 음악상 수상

'94 골든글러브 남우주연상 수상

'94 베를린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

## 친구사이와 나눕시다.

## Q&A

**Q** 저는 대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우연히 동네 극장에서 동성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묘하고 짜릿했습니다. 그 뒤 자위행위를 할 때마다 남자와의 성행위 환상이 떠오르곤 합니다. 공부도 잘 되지않고 모든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제가 동성애자인 것일까요?

### A 고민하는 학생에게

먼저 이러한 고민은 학생만의 고민이 아니니 지나치게 걱정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군요. 연구된 바에 의하면 인종이나 국가, 문화 등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인구의 6-15%가 동성애적인 성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키레이 보고서는 사람들을 성취향에 따라서 다음의 7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완전한 heterosex (이성애자).
2. 대부분의 heterosex. 가끔 gay (동성애자) 환상을 가짐.
3. 양성연애자(bisexual).
4. 대부분의 gay. 아주 적은 heterosexual 경험.
5. 완전한 gay. 가끔 heterosexual 환상.
6. 완전한 gay.

동 보고서는 이중에서 4번부터 6번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인구의 10% 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비교해보고 스스로의 성경향을 분석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많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것을 권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성, 여성의 두가지 밖에 없지만 유전적인 요인이나 유아기로부터 사회화 과정(남성성의 획득과정)을 거치는 동안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회적, 심리적 성경향의 다양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자들도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동성애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는 오늘날 지구촌에 사는 많은 동성애자들의 노력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매체인 영화, 연극 등을 통하여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동성애자를 대하는 시각이 달라지리라 확신하며 '친구사이'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동성애와 무분별한 동성간의 성행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유전적 소인에 의해 성충동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식있는 현대인이려면 건강상의 ( A I D S ) 측면이든지 인격적인 이유로든지 현명히 행동하여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고와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며 자아실현을 위해 힘쓰는 동성애자(혹은 동성애적 경향을 가진 사람)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친구사이"에서는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전화, 우편 상담을 받습니다.

주소: 110-612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246호 친구사이

## 동성애 여성들의 친구 모임!

동성애 여성들의 친구 모임을 갖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015 - 217 - 4179 발신자 전화번호 +\*79

전해성

# 친구사이

### 하얀 노트

#### 장주네에게 띄우는 겨울 편지

그리운 그 나라의 안부를 전하며 이땅에서도

눈은 내렸다 젖은 손바닥 자살금을 따라 눈물을

녹이며 곧잘 사그라드는 눈 먹을 수 없기에 더욱

부신 눈송이들은 네 깊은 눈동자 만큼이나 허기져

보이기도 했었다 밤이었을 그래서 네가 지상에 별로

남아있지 못하고 감옥에서 슬슬히 버려졌을 최후

그래 허물일 뿐이라고 네가 네 몸마저도 버렸을 무렵

예정된 것이 하나도 없었던 나의 삶은 조금씩 어둠으로

눈떠오고 있었다 무수 장주네,

네가 사랑했던 무수한 파리장들과 이토록 그리워해야할

한국의 못 사내들 필연의 업이었을 삶과 무참히도 꺾여질

나의 사랑까지도 모두 다아 떨어버리고 떠날 수 없었던 건

너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남자였던 탓이다

틈틈이 훑쳐 보는 너의 도둑일기와 향기로운 너를 닮은

이국의 사내들 눈물로 나눠 마시는 술잔을 돌리며 우리가

식구처럼 모여 앉은 저녁담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죽음

뒤로도 가져 갈 사랑 하나를 만나기 위해 오늘도 나는

바람에 채여 절뚝이며 모질고 먼 이길을 간다

### 고마우신 분들

- 익명의 후원자 100,000원 (카페 '좋은 친구들'에 남겨놓으셨음)

- 지방의 종교인 100,000원

- 익명의 후원자 50,000원 (WRITTEN AS 'DOMINATION FOR MAGAZINE' ON A RED ENVELOPE)

### 원고 모집

소식지에 게재할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 컬럼, 수필, 4단 만화 혹은 카툰 등 종류를

불문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100-612 서울 광화문 우체국사서함 1246호

친구사이 앞

## 친구사이 광고

친구사이에서는 여러분의 상호 만남과 친목, 동성애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두가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진실한 우정과 대화가 필요하신 분, 삶의 활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가해주세요. 문의 전화는 601-7942입니다.

### \* 야유회

4월 24일 일요일 마석 수동캠프에서

재미있는 게임과 즐거운 대화로

상큼한 봄날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자원봉사자와 회원들도 만나보고

충고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가비는 20000원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4월 22일 자정까지

확인전화를 주십시오.

### \* 영화의 밤

5월 1일 일요일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대학로 "Sun and Fish"에서

참가비는 5000원입니다.

건전한 동성애 문화 형성과 동성애 이해를 위한

자리입니다.

상영될 영화는 "오코계"라는 일본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마무리...

친구사이 소식지 제 2호의 본격적인 배포 이후로 저희 친구사이에 보내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소식지 친구사이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70여곳의 업소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며 서울의 극장가, 대학로 등지에도 배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텔에서도 '친구사이'는 널리 인지되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성경향(性傾向)으로 고민하는 문의 및 상담전화가 걸려왔으며, 자발적으로 친구사이의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분들을 인터뷰하여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뜻을 펼치기 위한 최소 필요적 경비는 아직도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으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로 한 열성어린 자원봉사자의 집을 이용하고 있어 그분의 사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친구사이는 사무실 마련 및 소식지 '친구사이'의 지속적 발간과 활동을 위하여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금액 : 1000원 ~ 무한대

계좌번호 : 국민은행 094-01-0245-154

친구사이 앞

\* 은행송금이 실명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곤란하신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주소: 100-612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246호